

베트남, 물가안정 및 국영기업 개혁 필요

□ 최근 경제동향

<표 1>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f	2005f
경제성장률	5.8	6.4	7.1	7.5	7.6
소비자물가상승률	-0.4	3.8	4.0	9.0	6.0
GDP대비 경상수지	1.5	-2.8	-5.8	-4.1	-4.1

자료 : ADB

- 금년도 농업부문의 성장은 미진했지만 광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호조로 상반기 7.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정부는 하반기 8%의 높은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수출도 호조를 보여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이 전망치인 12%를 넘어선 20%를 기록했고 반면, 수입은 원재료 수요증가로 인해 14.7%의 상승세를 보임.
- 상반기 FDI 총승인금액은 전년도 7.1억 달러보다 약 12% 증가한 8억 달러 수준이며 해외 송금액이 9억 달러에 달해 안정적인 외화 유입이 기대되고 있음.
- ADB도 이와 같은 경제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금년 7.5%, 내년 7.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7.2%에 달하여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경제의 지나친 국영기업 의존으로 향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정부의 물가대책 및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이 향후 베트남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 물가상승 압력과 대책

- 금년 물가상승률은 음식료와 비료, 철강, 석유제품 등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으로 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비용증가의 영향으로 몇 개의 국책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등 베트남 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해결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주요 농산물인 쌀 가격이 전년 대비 약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와 북부지방의 계속된 가뭄과 조류독감 확산의 영향으로 음식료 물가가 상승하게 됨.
 - 베트남은 90년대 초 부터 산유국 대열에 올라섰으나 가솔린과 나프타 등을 생산하는 석유 정제시설을 갖추지 못해 역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정유시설의 본격적 가동은 2006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 국가 시장조정 위원회(National Market Steering Board)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 수출 계약의 중단조치를 시행했으며 쌀의 수출을 전년 수준인 350만 톤 규모로 유지할 계획임.
- 비료, 철강 및 석유제품 등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인하를 통해 단기적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재료 자급을 위한 공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각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

상함.(단기예금에 대해서는 2%에서 5%로, 장기예금에 대해서는 1%에서 2%로 각각 인상함) 현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5%로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의 추이에 따라 금리인상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 개혁과제

<표 2>

단위 : 개,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국영기업수(SOE)	5,713	5,571	5,334	4,981	4,361
산업생산에서 SOE의 비율	40	33	31	30	29
비석유류 수출에서 SOE의 비율	54	48	44	39	33
SOE에 대한 은행여신	48	45	42	39	36

자료 : WorldBank, IMF, Vietnam government

- 베트남의 국영기업은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고 보조금 지급, 관세부과, 수입 쿼터제한 등을 통해 보호받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기여 했으나 과도한 부채의존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10월 중 공무원과 국영기업 근로자의 급여와 연금을 인상할 예정으로 국내 소비수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정부재정 악화와 국영기업 개혁의지 후퇴라는 점으로 미루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올해 국영기업 1,000개를 민영화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130억 달러에 달하는 국영기업의 부채 처리문제로 인해 실패할 것으로 보임. 금년 8월까지 358개만이 민영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로 연말까지 700개 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2005년까지 3,000개의 기업을 민영화하고 2007년까지 2,000

개의 기업을 유한회사로 전환하여, 국영기업을 1,000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민영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에 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해 재무상태, 경영성과, 수익상황, 종업원 평균급여, 정부보조 등의 내역을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국영기업 종합 개혁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물가상승과 국영기업 개혁부진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문제점이지만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수출용 원재료 자급을 위한 대책마련,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적절한 통화정책 시행, 국영기업 민영화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음.

전문연구원 고희원 (☎3779-6686)

E-mail : koheewon@koreaexim.go.kr